

제 283 회

제 3 차

서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서천군의회사무과

2020 년 7 월 29 일 (수) 10시 00분

의 사 일 정 (제3차 회의)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부 의 안 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군수제출) ..... 2

○의장 나학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나학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업무보고 일정에 따라 문화진흥과, 안전총괄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무협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

○의장 나학균

문화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김아진입니다. 지난주 문화예술분야 간담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감사합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199쪽에 성문 복원 계속 해나가고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도 설계해서 착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지금 서천읍성만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산에 나무가 활엽수가 많아서 거기도 식목행사를 다시 해서 주변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산책로를

가로등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리해서 서천읍민들이 운동은 서천읍성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 여가활동은 봄의 마을 광장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예,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다 마을이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마을이랑 문화재랑 환경적으로 어울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복원계획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니까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들은 같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좀 더 알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208쪽에 워킹맘 데이를 올리는 하지 못했죠?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해마다, 작년에도 했었고 뒤에 기획공연하고 좀 연계가 돼요. 군비 100% 들어서 하는 사업인데 할 때마다 제가 말씀도 드리고 개선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공연을 가보면 항상 외부가수를 초청해서 그냥 듣고서 끝나는 형식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획공연이 1년, 2년, 지금 4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2년 초창기에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지금 3~4년차 돼 가면

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수 불러다가 그냥 1회성 공연을 하고 끝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수들 초청하는 사이에 지역주민들 뭐 생활예술하시는 분들도 그 무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연을 할 때—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금은 장담할 수 없지만—지역주민들 또 지역가수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활용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워킹맘 문화데이는 제목하고 취지가 다르게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연령대가 워킹맘이라고 하면 조금 젊은 세대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공연은 항상 어르신들 위주의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취지에 맞게…… 기획공연도 계속 추진해서 청소년,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워킹맘 문화데이 때만큼은 취지에 맞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214쪽에 문화관을 건립하신다고 하셨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지금 장항 쪽에 또 건립을 하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이거는 문예의 전당……

○김아진 의원

문화관.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서천 문화관, 이걸 서해수산 그 안에 그거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전시관, 뭐 역사문화관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면 문화관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쪽은?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부족한 부분이 장항 쪽에 지금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시하는 그 공간도 장항의 집에도 전시공간이 굉장히 좋게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또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미술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지역분들 하고도 좀 소통을 해가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이게 저번에 장항 가서 상의를 했었는데요. 청소년시설도 요구하더라고요. “청소년시설이 없다” 그래서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청소년시설 때문에 지금 기별포생활문화센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밑에. 영화관 밑에.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춤추고 댄스 배우고 이런 시설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스마트시대라 어떤 청소년들이 IT를 활용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아진 의원

지금 생각으로는 그 시설하고 여기 부분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맞지는 않는데 장항에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시설에 따로, 그거를 따로 또 추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조금 일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도 했으

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김아진 의원

문화관이라는 취지에 맞게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김아진 의원

또 다른 시설들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용역을 줄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206페이지 한산모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 관련해서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의원

저는 어쨌거나 이게 사업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아쉬움은 지금 저희가 한산모시 짜기 과정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등재되고 실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으로 한산모시짜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연계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정하는데까지는 대단히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등재를 해 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이 한산모시짜기와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별로 연계사업도 하지 않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그러니까 저희들이 크게는 행사는 못하고

모시짜기 후계자 육성 그 전통교육하고 모시 짜기문화재 방연옥 선생님을 비롯해서 어떤 조그마한 행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한산모시라고 하는 전통을 잇는 정도의,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들이었고 그전에도 해 왔던 일들이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의원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힘들게 해서 유네스코까지 등재한다고 하는 건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가치를 활용해서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의원

그냥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마는 정도라면 뭐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로 당진의 기지시 줄다리기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조동준 의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기지시 줄다리기만 가지고 축제를 특화시켜서 해왔던 것이라 더 연계성이나 유네스코 등재된 것에 대한 활용을 더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는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해요, 특화된 사업들을.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인정해 준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건데 받아놓고 뭐 저희가 지역에서 후계자 육성하고 하는 것은 아무 연계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당진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큰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념행사를 할 수 있지만 저희 모시짜기 같은 경우는 앉아서 행사하기가 좀……

○조동준 의원

아니, 뭐 꼭 무슨 축제를 한다거나 그 기지

시 줄다리를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모시의 어떤 장점이나 특성을 살려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시너지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개발하고. 그래서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저희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계해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는 것도 지정되면 뭐할 거냐 얘기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후에 후속적인 계획들이 나오지 않으면, 지정해서 박수치고 끝나고 말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지정되도록 추진해서 지정 됐으면 좋겠고요.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대신에 지정된 이후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산모시를 어떻게 좀 더 활성화 시킬 건가에 대한 계획까지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시짜기 과정에 대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관련해서 사실 특화시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까지 같이 등재가 된다고 하면 저희모시의 우수성과 전통성, 역사성들이 같이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더 많이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시가 더 활로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무협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즘 장마·폭우로 인해서 위험지구 특히 급경사지역이 굉장히 위험함을 느껴요, 보면. 며칠 전에도 장항초등학교 옆에를 가봤는데 흘러내리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기 때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저희들이 수시로 위험지역에 대한 부분은 돌아다녀보고 있는데요. 지금 장기간 비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어서 지반이 굉장히 연약한 상태라서.

○김경제 의원

지금 보면 산사태 위험지구라든가 급경사지가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최소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겪어와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위험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항상 그런가보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사태라든가 아니면 급경사지가 붕괴되거나 위험을 느꼈을 때 우측으로 피해야 될지 좌측으로 피해야 될지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될지 주민들한테 사전에 교육이 필요해요,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특히 원수리, 성주리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길 한번 당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촘촘히 살피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사고 난 이후에 빨리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김경제 의원

또 한 가지는 군민 안심벨을 2019년 5월달에 7개소를 설치했다고 했어요. 서천하고 마서예.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김경제 의원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지금 설치는 했고요. 아직 준공처리는 하지 않았는데 설치를 한 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군소식지에 게재 할 예정입니다.

○김경제 의원

19년 5월달에는 설치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김경제 의원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전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설이 위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더군다나 6월달에 7개 설치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김경제 의원

설치해 놓고 방치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험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읍·면을 통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도 자꾸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과장님, 저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번에 직제가 개편돼서 안전총괄과가 중간정도로 향상인가요, 상승인가요? 아무튼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의미는 우리 실과 간에 그런 조정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우리정책의 어떤 중점의 변화에 따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직제가 변화된 만큼 그에 따른 더 추가적인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굴되고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야 어차피 기존 예산들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데 새로운 연도에 사업들을 구상하실 때 직제가 변화된 거에 맞게 전반적인 우리 서천군에 안전과 생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들도 만들어 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업들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직 저도 그런 부분들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기획실이나 다른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변화된 직제에 맞는 우리 안전총괄과의 실제 내용적인 위상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맞춰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주문들 드리려고요.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막중한 업무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서 더 노력해서 군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내년 사업구상 지금쯤 하고 계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각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개별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병해충 방제단 구성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아진 의원

해마다 시기적절하게 예찰을 하고 병해충 방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농업용 드론도 지원을 하고 헬기도 지원을 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김아진 의원

이 병해충방제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지원을 했는데, 하면서 드론이라든지 헬기라든지 그 조종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을 딴 농민이 이 방제단에 참가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방제단 인건비가 굉장히 작년하고 동일하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래서 앞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참여를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가 이 방제단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드론 자격증 교육비도 지원을 하고 헬기자격증 교육비도 지원을 하고 전문인력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분들을 이 방제단 활동에 같이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원예산업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그게 푸드플랜하고 조금 연관이 있나요?

○농정과장 박명수

주로 그 2개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생산하고 유통, 소비까지도 재활용까지도 다 가야 하는 게 푸드플랜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금년도를 원년으로 생각을 하고 2개 용역을 발주·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군에선 원

특분야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더 넓은 유통망이라든지 생산판로를 개척하고자 이 사업 용역이 발주된 사항입니다.

○김아진 의원

장기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그것들이 유통되고 소비되고 자체적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농민들하고도 잘 의견을 수렴하시고 우리 관내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냥 서류상으로나 공모를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천군에서 정말 잘 되었다라는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용역을 주실 때도 종합계획을 세우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저는 친환경 농산물인증 확대와 학교급식지원센터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급식센터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농정과장 박명수

지금 4년째, 정식운영은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3년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학교급식센터가 설립돼서 운영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논의와 논란 과정들을 겪었었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조동준 의원

여러 가지 논란 중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결국에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준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거고 우리 농정과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박명수

저희과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학생들을 빼고 나면 지역농산물의 안전한 판로 확대, 특히 친환경 부분하고 소농가들, 소농가들이라면 원예파트가 일정부분 차지합니다. 그러한 먹거리를 전체적으로 팔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유통구조가 없기 때문에 소농가에 대해서 일정부분 안배,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정확하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주는 건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하신 우리 농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작부체계의 변화에 대한 기대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계신가요?

○농정과장 박명수

현재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원특분야에서는 소규모농가에 대한 시설하우스라든지 작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들을 한 2년 정도 추진해 왔는데요. 현실적으로 소농이 열두 달 생산해서 그 납품을 소량씩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현재 미비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동서천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하우스 일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소량씩 생산·판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작년·올해 첫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그 능력들을 배가를 시키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저희 농정에서 사실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적인 방식에서 작부체계를 변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

나 친환경 먹거리를 생산하는 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문제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런데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그래서 지금 3~4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공급되는 농산물, 먹거리들에 대한 출처와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건 아시죠?

○농정과장 박명수  
일정 부분 꾸러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동준 의원  
저희가 가장 1차는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고요. 그다음에 광역의 친환경농산물이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3차가 지역……

○농정과장 박명수  
지역농산물.

○조동준 의원  
우리 서천 로컬푸드고 그다음에 광역 로컬푸드. 그거 잘 지켜지고 있어요?

○농정과장 박명수  
현재 대부분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저희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부분들이 일정부분 있었고요. 문제가 됐던 적은 꾸러미사업을 하면서……

○조동준 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순위를 그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우리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가장 1순위로 공급돼야 된다고 하는 명제가 있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 작부체계 변화가 그렇게 맞춰져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 거죠.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 순위대로 하니까 맨 끝 순위 거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쉽지만.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최근에 또 1~2년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행정에서…… 가장 핵심은 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게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소농가들이 참여가 가능한 거고, 저희가 학교급식센터 만들기 전에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갔을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행정에서 농가들을 조직하고 여러 품목들을 학교급식 공급에 맞는 품목에 수요량과 맞춰서 생산되도록 하자고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박명수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결국에 말씀드린 전반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박명수  
예, 맞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작부체계를 변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 핵심전략사업에 나와 있는 공약이기도 하니까 연계해서 친환경농가들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하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최선을 다해서 작부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그 부분 적극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박명수

예, 알겠습니다.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완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천군에 액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액비는 저희들이 맥우(맥우영농조합법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신두 의원

처리과정은 과장님이 관리 않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처리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약간 수거나 다른 데 나가는 외부반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두 의원

지금 언론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론하고 관련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보도 내용은 잘.....

○강신두 의원

액비에 대해서 언론하고 연관된 거 없어요?

액비에 대해서 언론에서 아무 말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보도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요.

○강신두 의원

못 들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강신두 의원

17년도, 18년도, 19년도 액비 살포한 필지수와 사진촬영 한 것을 가지고 한번 저한테 다 주세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치. 액비지원에 나간 필지 수 촬영한 사진과 필지 수.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지원내역을 정확하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그 내용보다도요, 다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강신두 의원

하여튼 저한테 지금 이거..... 내가 이거 때문에 지금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치 살포내역서에 필지수와, 필지에 뿌리면 사진촬영 해야죠. 사진촬영 한 거까지 첨부 좀 해서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완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 되었으므로 11시 15분까

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희량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예.

**○김아진 의원**

공터라고 할지 그냥 빈터에다 조성하는 주차장 사업은 거의 다, 하는데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건물을 헐어가면서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작년에 한번 있었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데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 만큼 경각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좀 유료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려고만 하면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어느 선까지 주차장을 마련할 건지에 대한 그 계획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예,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희량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충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의원**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안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가로조 청소를 직영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다소 뭐, 직영으로 전환해서 12명이 개인적인 이런 의견들 때문에 전반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배치도 했고요. 지금 상황은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동준 의원**

아무튼 운영상에 다른 문제들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조동준 의원**

저희가 첫 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화원들과 잘

협의하셔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주문 드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있는 한산이나 비인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조동준 의원

여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죠?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거기는 배출된 규격봉투만 수거하고 있고요.

○ 조동준 의원

그러니까 그거만 수거하고, 차량으로.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방치폐기물 처리하고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배치는 못한 실정입니다.

○ 조동준 의원

가로는 청소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조동준 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건 아니고, 서천이나 장항과 같이 매일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쪽에 주민들도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가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 조동준 의원

순회하면서 2~3일 간격으로라도 청소라도 가로조와 같이 해준다고 하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4시부터 출근을 하는 가로조들이라 그분들, 우리 직원들 활용해서 하는 것은 더 한번……

○ 조동준 의원

현 인원 가지고 하는 건 안 되고.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무슨 말씀인가 한번 더……

○ 조동준 의원

제가 들은 말로는 지금 현재 인원도 사실은 12명 정원으로 운영하는데 결원이 생기거나 결원이라고 하는 건 휴가나 질병이나 이런 경

우에 결원 생겼을 경우에 사실 스페어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인원을 추가를 1~2명 정도하시고, 비인·한산·관교세 지역 정도의 가로는 그 인력들로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예산형편에 따라서 감안되어야 하긴 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조동준 의원

한 가지는 지금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중대형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지금 그냥 어떻게 수거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지금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중대형 음식점은 의무화했기 때문에 사업장 스스로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위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들을 하셨을 때 음식사료화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말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퇴비화 방법을 찾을 때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조동준 의원

음식점용 대형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몇 리터까지 있어요, 지금은?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지금 제가 알기로는……

○ 조동준 의원

아무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말씀드리는 건 과거부터 오염되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길고양이들이 훼손하는 부분 또 특히나 중량이 커짐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들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조동준 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음식점용 중형정도의 음식물 수거함을 배포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배치되어 있는 음식수거함

있잖아요? 이걸 중형이나 소형으로 제작을 해서 음식점에 배포를 하면 실제 음식점 업주들도 배포하기 편하고 수거나 관리도 오염되는 부분도 좀 편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수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연장선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고민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음식물전용 수거용기라든가 총배출량 15톤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다 퇴비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조만간 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동준 의원**

그 방법까지 같이 검토를 더…… 한번 점검해보셔서,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가급적이면…… 사실 예산적으로 제가 불 때는 크게 들어갈 것 같진 않거든요. 1회성이 아닌 거니까 제작되면 계속 운영이 가능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감사합니다.

**○ 조동준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아진 의원**

(거 수)

**○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아진 의원**

좀 전에 연계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을 지금 처리할 때 자원화 할 수 있는…… 예전에는 사료화도 하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게 됐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김아진 의원**

그러면 지금은 퇴비시설로 해서 비료로 만드는 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지금 현재는 사료화는 전혀 못하니까요. 현재 그 연장선에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같은 용역사가 논산에 있는 퇴비를 하고 있는 업체라 그쪽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화 방법을 조금만 개선하면 공정 중에서 사료화 공정을 퇴비화 공정 하는 걸로 조금만 바뀌면 문제 없을 걸로 판단하는데, 다만 그게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균비라도 건의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아진 의원**

앞으로 공공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시설도 보강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경제 의원**

(거 수)

**○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제 의원**

한 가지만 좀, 지금 다사리 주변에 재래식 화장실을 첨단화장실로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김경제 의원**

그런데 다사리·선도리 바닷가 주변을 가보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문짝도 없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보면 점심식사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외지인들이 많으신데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관리 밖에 있는 화장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천군이 대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항상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몇 군데 때문에 굉장히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서천군의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보고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말씀 드리지만 대체적으로 하굿둑에 있는 하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죠?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맞습니다.

○ 김경제 의원

심지어 저녁에는 열쇠를 채워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군에서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같이 하면서 우리가 관리비를 좀 받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죠.

우리가 99개를 잘하고 하나를 잘못하니깐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서천군의 전체 공공화장실을 그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거기만 들리신 분은. 그런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던 하굿둑 화장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 해보고…… 거기 말고는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거기 말고는 우리가 관리하는 중에 아니면 나타난 중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 김경제 의원

협조가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문으로만 하시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라도 서로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비용을 부담하든가 아니면 전격적으로 우리 서천군 이미지가 훼손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저희들 생각은 철거하고 최첨단으로 저희군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제 의원

그게 어떤 방법이든 이게 지금 1~2년 된 게 아니고 계속 매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그쪽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경제 의원

그래서, 야간에 급한데 화장실에 갔는데 문

이 잠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외관상으로는 좀 깨끗하게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저희도 상당히 안 좋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김경제 의원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김경제 의원

그리고 또 그곳은 대부분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하상주차장에서 정차하고 들렀다가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용도가.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김경제 의원

우리군의 이미지가 거기서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실을 짓든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든 어떤 방안을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알겠습니다.

○ 김경제 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 김경제 의원

그리고 다사리·선도리 주변도 우리군에서 한번 답사를 하셔서,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어요, 쪽 보시면 이게 좀 이미지가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실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예,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나학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남용**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강신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두 의원**

강신두 의원입니다. 한 구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배다리 저수지에서부터 농협주유소까지 구간이 가로등이 그때 당시 빠졌는데 어떻게 책정됐어요?

**○건설과장 조남용**

가로등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보도, 위험한 구간, 교차로 그런 구간 일부가 되어 있고요. 전 구간 가로등 설치계획은 아니고요.

**○강신두 의원**

가로등 전체는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건설과장 조남용**

그게 어떤 가로등 개념이 교차로 그런 부분만 현재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만약 한 이후에 가로등 유지보수는 저희군이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신두 의원**

가로등을 할 때 지금 현재 춘장대 외곽 쪽으로 만든 가로등 있죠?

**○건설과장 조남용**

예.

**○강신두 의원**

그것하고 같이 맞추는 걸로 좀, 가로등을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건설과장 조남용**

같은 공정으로 해야겠죠.

**○강신두 의원**

그렇게 해야 이것저것 아니고 보기도 괜찮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알겠습니다.

**○강신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지금 송내-창선간 4차선 도로 확포장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지금 연약지반은 안정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시죠?

**○건설과장 조남용**

예,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재개 한 겁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데 보조 기층을 12월달에 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12월달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요, 별도로?

○건설과장 조남용

저희가 현재 지하 구조물하고 현재 포장 있죠? 그 부분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동진공업사 앞을 낮추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 정상 저희가 보조 기층 그 부분이 한 11월, 12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제 의원

현재까지는 보면 연약지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사를 도로보다 쌓아놓고 마대로 해서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이제 다 걷어낸 상태에서 우기가 끝나면 황토가 굉장히 날릴 걸로 예상돼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그건 잘 아시지만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또 이곳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 기층을 좀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꼭 시설물을, 구조물을 완공이 되면 한 번에 가능하지만 일부 구간씩이라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어쨌든 한 2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보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도 민원이 생겨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루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산리 들어가는 구간도 일부 구간 얼마 안 되는데 포장 안 해줬다고 굉장히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개선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불편이 없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용배수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전체적으로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입찰을 지금 보통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남용

저희가 1억 이상이면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내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관내에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관내입찰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가 약간 1억씩 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 장소에 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해서 할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군은 군대로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법도 지켜야 되고 하지만 또 지역에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불만이 좀 있어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우리가 도에 입찰보다는 우리 군내에서 입찰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가능하면 몇 개 사업을 모아서 입찰 보는 경우가 있죠?

○건설과장 조남용

예,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요즘 또 굉장히 어렵잖아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김경제 의원

특히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건설과장 조남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 재배치를 해서 읍·면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그래도 좀 뭔가 소득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떤 누구를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지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물론 실과의 고층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투명하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건설과장 조남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코로나19나 이런 걸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남용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업무보고(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장 나학균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아진 의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봄의 마을 주변에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아진 의원

이미 매입을 해서 한오백년 자리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아진 의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도 사실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비도 많이 들고 또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없고 땅만 활용하게 되는 경우였잖아요, 주차장으로. 그런 사업들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효율성면에서.

그냥 땅만 있는 데였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만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헐고 나서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게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장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봄의 마을 자체가 시내에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조성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됩니다. 주차장 조성하기도 어려웠던 부분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실 때 이 주차장 분명히 고려를 하시겠지만 5년 이내의 주차장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실 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장기미집행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해제가 됐습니다.

**○김아진 의원**

7월달로 해제가 되고 그 이전부터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걸 대비해서 기금을 모아서 필요한 토지는 매입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탐장님하고 얘기를 했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계획적으로 되어 가고 있나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해제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토지를. 그런데 그거에 맞춘 그 예산이 해마다 5억씩 배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수용을 토지매입을 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해제된 이후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해제가 되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기존에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는 선제적으로 앞으로의 도시의 확대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미리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세워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5억씩 투자를 해서 하기는 했지만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타 시군에서는 뭐 기금조성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산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423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전에도 했었고요. 하고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데 1차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주민들이 다 완료를 했나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지금 세 군데는 일단 거의 완료를 했고요. 한 군데는 지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고 두 군데는 거의 완료했습니다.

**○김아진 의원**

신청한 부분 중에서 3,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3,000만 원입니다.

**○김아진 의원**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개인이 한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들이 다 자부담분을 모금을 해서 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라는 계획을 갖고 신청을 했는데 막상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그 건축설계를 해 보니까 그게 몇 배로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러다보면 자부담분이 너무 커지다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계라든지 견적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공동주택 그 민간인들이 그걸 정확히 산출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크지 않아야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부담분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본인들이 생각한 7 대 3이라든지 5 대 5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자부담분을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너무 커지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소박하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일에 손을 대면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돈보다 초과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까지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저희가 미리 챙겨서 그런 것들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런 부분을 신청하고 나서부터도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의견서 채택을 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타 부서하고 협업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하셔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도시재생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애쓰셔서 공모사업 준비를 하셨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좀 더 많이…… 지금 공청회 두 번했나요? 공청회를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 의원

(거 수)

○의장 나학균

김경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의원

김경제 의원입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 중에 터파기 하다가 토사가 밀려서 파일이 19개가 넘어졌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이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지연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지금 5월 25일 그것이 발견된 이후로 일단 본공사는 중단했고, 옆쪽으로 쌓아놔던 흙은 더 넓게 뒤쪽으로 치워둔 상황이거든요. 그러

니까 그거만 계산해도 지금 두 달 정도.

○김경제 의원

두 달이 지연되고 있고 또 지금 넘어진 파일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장하라고 나오면 보장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야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설계하고 시공하는데에서 또 시간이 걸립니다.

○김경제 의원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그것도 한 2개월 가까이 걸릴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감독, 관리 하시는 분들 다 있으시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개발공사에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네.

○김경제 의원

우리 서천군에서는 감독 관리 하기 위해서 상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개발공사에서요?

○김경제 의원

우리 서천군에서.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경제 의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개발공사에선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개발공사에서는 당연히 하죠. 당연히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요. 지금 이 공사가 3개월, 4개월 지연이 되면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다른 시공 공사에서 공기를 단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사실은 공기 단축하기는 만만치 않아요. 지

금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준공날짜까지 보면 이게 여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에요. 그러면 한 3~4개월이 지연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서천군에 굉장한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오는 거죠? 지연이 되면.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여러 가지 이전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겠죠.

○김경제 의원

그래서 이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도 상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돼요. 이게 남의 손에 맡길 일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보면 토사가 밀려서 파일이 넘어졌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D급 수준이에요. 이 빨은 토사가 밀릴 때 각도가 없어요. 심지어 아래에서 솟구쳐 올라와요. 이번에 경험해서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부마찰력이 올라오죠.

○김경제 의원

이게 뭐냐면 지역에 대한 토사에 대한 개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합당한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에서도 기초적인 것부터 관리하고 또 그들한테 자꾸 요구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돼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상주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우리 직원이 거의 뭐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자, 직원이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공사가 완공됐을 때 보면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우리군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 잘 챙겼을 때.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밀려난 19개 파일에 관해서 우리군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보강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물론 지금 사업시행처에서 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강사업이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 전체 건물이 기울 수 있다는—단정해서는 안 되지만—그럴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지금 상황 원수리하고 성주리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성원그린나래.

○김경제 의원

예, 원수리 도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마을안길에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여러 가지 의견 다양하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도……

○김경제 의원

과장님이 보시기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어떤……

○김경제 의원

원수리 마을안길에서 지금 지방도로 나오는 도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네요. 주민들이 경사도로 마을안길 정비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으시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거는 반영해서, 지금 주택이 1개가 있거든요. 그 집을 사야 되는데 그 집이 지금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경제 의원

지금 경사로 마을안길 정비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저는 성주 행복주택.

○김경제 의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수리 1리 마을안길에서 지금 국도로 나오는 도로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지금 도로확장도 일부 했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그 도로가……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등기소 뒤쪽으로 나오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제 의원

반대쪽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아, 이쪽으로요?

○김경제 의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짓는 옆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주변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주택보다 상당히 위로 올라와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약 못하고 계시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 내용은 제가……

○김경제 의원

엣그제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나오세요.

보니까 경사가 심해서, 거기서 제가 직접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도로에 나와서 자전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러니까 전에 그 도로가 나오기 전까지 한 구간이 좁았었는데 지금은 다 넓게 포장이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자전거 타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 주민들이 지금 그것을 이 사업과 병행해서 좀 도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모르세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제가 바로 확인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가급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요구사항이 아니고 보니까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전동차 내려오는데도 가속도가 붙어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바로 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그게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간이. 그 부분을 정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도로정비를 하면서 인도를 많이 정비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그런데 저도 어제 그저께에 방송을 보고 알았어요.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가기 위해서 지금 경사를 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이 경사가 법적으로 몇 도 돼야 되는지 아

세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우리군에서 설치한 걸 보면 기본이 20도~30도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방송을 봤는데 이게 4%에서 2%까지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새로 보완하기는 어렵지만 새로 우리가 설치하는 인도만 큼이라도 장애인들이 전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헤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전혀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그걸 보고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봤더니 지금 서천 노인회 사무실 가는 길 있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거기 같은 데 보면 경사로에 경사가 저서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도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좁게 해서 그렇게 경사로로 하느니 도로포장하고 같이 해서 다른 분리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 맞는 현실적인 인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정비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데부터라도 하나하나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점검하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기울기가 몇도까지 허용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과연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가 소송을 하고 이 문제에 대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지역은 고령자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

들을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더불어서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의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예.

○김경제 의원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실과에서는 묶어서 입찰을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이 그나마 지금 여러 가지 상권도 무너져가고 기업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생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지금 그렇게 상당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하시겠지만, 우리군은 군대로 나뉘대로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사자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우리가 항시 들여다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천 억 공사하면서 남한테 맡겨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남의 기술로 남의 입술로 듣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 조그마한 거라도 챙기고 자꾸 요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알겠습니다.

○김경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나학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순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여주신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나학균, 강신두, 노성철, 김경제, 조동준, 이현호, 김아진 (7명)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부군수	이교식
기획감사실장	한덕수
사회복지실장	노원래
투자유치과장	이정성
민원봉사과장	신언달
자치행정과장	이성구
재무과장	박범수
관광축제과장	구승완
문화진흥과장	한무협
안전총괄과장	전용각
농정과장	박명수
산림축산과장	김영완
지역경제과장	노희량
환경보호과장	구충완
해양수산과장	김진호
건설과장	조남용
도시건축과장	정해순
보건소장	김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
맑은물사업소장	정춘길
공공시설사업소장	황인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대철

○의회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의회사무과장

정진형